2017·04

암환우와 함께하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ACC Australian Cancer Care Inc

SICA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En)australianhospice.com.au (Kr)sydneyhospice.com.au • Email:australianhospice@gmail.com • Mob: 0430 370 191 / 0416 758 272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제8차 호스피스 콘서트
(Meredith House Nursing Home 2017.3.20) &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Watsons Bay 2017.3.11)

8th Concert(2017.3.20)

이달의 말씀(The Word of God):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5:13-16)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by men.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Neithe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owl. Instead they put it on its stand, and it gives light to everyone in the house.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praise your Father in heaven.(Mathew 5:13-16)

월간•146호
Monthly Issue 146

Address: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Publisher: Rev. Jang Dae Kim

ACC/SICA
Australian Cancer Care Inc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암환우와 그의 재활을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2·0·1·7
04

C·O·N·T·E·N·T·S

02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에서의 별미
-호주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06 호스피스(SICA)활동

07 회계 자료

표지 사진설명

제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는 한국 교민들이 밀집해 있는 Strathfield 에 위치한 Meredith House Nursing Home에서 가졌다. 그곳은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섬기는 96세 되신 교민 한 분이 거주하시는 곳이라서 한국의 전통 부채춤은 모든 Staff와 환우 들에게 더욱 빛을 발하였다. 또한 바닷가 걷기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오페라 하우스 앞 부두에 모여 배를 타고 가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산책을 한다. 지난 3월 11일에는 경치 좋은 Watsons Bay 로 가서 암 환우와 함께 즐거운 코이노니아를 가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에서의 별미
-호주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ACC/SICA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이 은화

2016년 2월2016년 2월 Macquarie university에서 1년 동안 연구년을 보내게 된 남편을 따라 시드니로 오게 된 나와 아들은 지금 이 시간들을 꿈처럼 보내고 있다.

호주에서 사계절을 보내며 우리 가족은 이름 모를 꽃들에 감탄하고, 들어 보지 못한 새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아침잠을 깨운다. 비 온 뒤에 땅 위를 활보하는 달팽이들을 따라 산책을 하고, 굳이 고개 들지 않아도 한눈에 보이는 하늘에 펼쳐지는 갖가지 모양의 구름들을 보며 탄성을 지르기도 하며, 수도 없이 자연과 교감하며 만끽하고 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한국에서의 삶 때문에 잠시 잊고 살았던 것들일까? 여기가 남반구라 색다른 자연이 주는 매력일까? 둘 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빨간 신호등 앞에서 푸른 신호등을 기다리며 잠시 멈춰 서서 내 주위를 돌아 보게 주님이 주신 여유 이리라...

같은 교회를 함께 섬기는 한 집사님께 여기 시드니에 한인 환우들을 위한 호스피스 봉사활동이 매주 월요일에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나는, 한국에서 몇 년간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다 막내녀석 대입 준비를 핑계로 그만 둔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참석을 결심했다.

월요일 아침에 시드니호스피스 김 장대 목사님의 인도 하에 신앙고백을 시작으로, 목사님과 참석하신 여러 봉사자 분들과 함께 성경 한 장을 돌아가며 읽은 후, 은혜 받은 구절을 서로 나누고, 환우 들의 명단을 들고 한 명씩 호명하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중보기도를 드린다. 오후에는 고국을 떠난 이민자로서 너싱 홈에 외로이 계시는 환우들과 집에 계시는 환우들을 심방한다. 우리들은 한 주간의 안부를 나누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필요하신 분들에게 발 마사지와 어깨를 만져드린다. 무엇보다도 환우들의 마음을 읽어 그분들의 고통을 나누고 공감하는 귀한 시간들이다.

첫 호스피스 봉사현장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한국에서는 치매 노인환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했던 터라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만 거기는 내 손이 많이 필요한 곳이었다. 힘든 면이 없진 않지만 그 만큼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 너싱홈이나 환우 가정에서는 내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는지 분별이 되지 않았다.

세계에서 호스피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영국이라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호스피스 제도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로 전문가들은 호주를 꼽는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모든 것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있고 드나드는 봉사자들은 함부로 무엇을 할 수도 없었다. 일주일 한번 나의 방문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나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위) 제8차 호스피스 콘서트 (피아노의 고장으로즉석에서 곡을 바꾸어 기타와 함께 부르는 재치의 솔로 - 사비나 양)
아래) 제8차 호스피스 콘서트 (전체 봉사자들이 "홀로 아리랑"을 합창할 때 연일 카메라를 누르는 너싱 홈 Staff))

그런데 그런 내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매주 중보기도 후 환우 들을 만나면서 생긴 변화이다. 구순이 넘으신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눈도 어두우시지만 보청기 없이는 들으실 수가 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며 치매를 앓고 계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면 할머니께서는 함박웃음을 띠시며 좋아라 하신다. 찬송을 드릴 때, 손 때가 묻은 성경을 펴고 율동 하듯 몸을 움직이며 손뼉 치며 즐거워하신다. 내가 호스피스에서 처음 만난 분이다. 매주 봉사자 들이 각 병동에 몇 팀으로 나뉘어 가기에 매주는 그 분을 뵐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힘을 빌려 중보기도로 항상 그분을 만난다. 어디 그뿐인가? 골수를 이식 받기 위해 입원해 있는 환우, 암 수술 후 집에서 통원하며 치료하는 환우, 너싱홈에서 찾아오는 이 없이 외로이 계시는 많은 치매 어르신들과 환우들... 그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런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질병이 주는 엄청난 고통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외로움과 그리움을 위로받는 것이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제지 시키는 것은 병원이나 호스피스의 몫이고 마음의 어둡고 무섭기만 한 터널을 빠져 나오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앞에 엎드리어 그들의 건강 회복과 영적인 평강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임무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 어떤 내 행위보다.

매주 월요일 아침, 우리 봉사자들이 모두 함께 나눈 말씀들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며 무가치한 것에 매달려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함이 유익한 것인지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다. 또한 그 어떤 준비보다 환우를 만나기 전 내가 해야 할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임을 깨닫게 한다. 그것이 내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 임을...

짧은 16개월 간의 호주에서의 생활을 마무리 하고 5월이면 귀국길에 오른다. 다시 신호등이 바뀌었으니 가던 길을 부지런히 가야 할 터이지만, 잠시 내가 누렸던 눈 호사와 바쁜 마음이 누린 평안은 호주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려진 나라로 나의 부러움 속에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이다. 갖은 사연들을 안고 이 땅까지 다다라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사랑하는 이의 옆을 지키기 위해, 혹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필요한 이들과 나누기 위해 늘 기도를 아끼지 않는 호스피스 봉사자들과 현장서 만난 환우들의 이야기들이 그 기억 속에서 가장 빛나고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ACC/SICA Activities

<Patients Recovery and Health Improvement Programs>

위)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를 마치고 커피 숍에서 커피 한잔을 시켜놓고 ....
아래) 2017년 3월 11일 Watsons Bay 에서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행사 중 삼삼오오 둘려 앉아 휴식과 담소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The organisation focuses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improvement of patients through meetings with other cancer patients and winners and its devised educational and practical programs. When the programs spread and each individual in the community improves his health, he will cut down his visits to doctors and this will eventually help the government save its medical budget.

Walk on the Beach with cancer patients

From August 2007, we started the Walk on the Beach movement with cancer patients. The high ozone level near the beach helps the patients see at wider angle and breathes fresher air. It helps with their recovery. Recently we completed the 447th Walk on the Beach and currently 30-40 members participate. Initially, many participated in going to the Blue Mountains and not the beach. Nowadays, many Koreans practice Walk on the Beach program almost every day on their own. We pride ourselves in staring this movement and this improves the health of a community and hence prevention of many diseases.

- We are going to develop this movement to a filial training academy for their parents of the second generations living in Sydney. This will eventually work itself into budget saving of the government.
- We added walking with bare feet to the above mentioned program. This has become very popular among the intensive care patients. Walking bear footed triggers and activates the nerve endings on feet sole.

Psychological Healing

- Healing through laughter-Laughter promotes better health
- Healing through Visual Art - Free drawing often helps find cause(s) of the disease and this in turn promotes faster recovery
- Healing through Music - Singing happily promotes healthier life

These programs spread among the Korean religious entities and elderly people. They practice once a week and we are reported their health has significantly improved.

Health Improvement and Disease prevention through seminars

Once a month, professionals and the organisation members contribute to have seminars on topics such as health improvement and disease prevention.

Volunteer Training Program
We have hospice volunteer training once a year with the Dong San Hospital in Korea.

Hospice Visiting Concert
We have Nursing Home Visiting Concert once a month.

Natural Rehabilitation Treatment Room
We operate a natural rehabilitation treatment room and help rehabilitate cancer patients.

Intercessory Prayer Meeting
We have an intercessory prayer meeting for cancer patients and his family every Monday.

History of ACC

20/3/2017. 8th Hospice Concert (Meredith House Nursing Home, Strathfield)
20/2/2017. 7th Hospice Concert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20/1/2017. 6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Estia Nursing Home, Ryde)
31/12/2016. 1st Hospice Mother's Award (Prize Winner: Keum Gui Lee, Ji Soo Jang, Jung Ok Jang)
22/12/2016. 5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Shalom Centre)
3/12/2016. Year End BBQ Party (Manly Beach)
30/11/2016. 4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Summer Hill Nursing Home)
15/10/2016. Picnic (Breakheath Frower Festival)
28/9/2016. 3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DHL Centre)
26/9/2016~6/10/2016 First Korea-Australia Volunteer Training
First Aid Training (18 Trainees)/Graduated 13 people among 24 students
3/8/2016. NSW Fair Trading Registry (INC1601021)
Chairperson / Public Officer (Representative): Jang Dae Kim
Treasurer: Jung Hee Song, Secretary: Soon Ja Sung, Audit: Cheol Ho Cho

DONATIONS

Do not withhold good from those who deserve it, when it is in your power to act. (Proverbs 3:27)

Bank Name: Westpac Bank

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ount Number: 032-069-53-7515

위) 제8차 호스피스 음악회에서 Worship Dance: 정경옥 전도사

아래) 제8차 호스피스 콘서트에서 모두 함께 율동과 건강 박수를 가르치며 웃음 치료하는 봉사자들과 채순자 팀장

<< ACC/SICA 호스피스 알림 >>

ACC/SICA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활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SICA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ACC/SICA 호스피스의 발자취

2017.3.20 제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Meredith House Nursing Home)

2017.2.20 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oodlands Nursing Home)

2017.1.20 제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Estia Health Nursing Home)

2017.1.9 ACC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영문홈피)

2016.12.31 제1회 호스피스 어머니 시상식 (수상자: 이금귀, 장지수, 장정옥) (ACC/SICA 공동 주최)

2016.12.22 제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Baptist Care,ShalomCentre) (성탄축하연합예배:ACC-Baptist Care)

2016.11.30 제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Summer Hill Nursing Home) (ACC/SICA 공동주최)

2016.9.26 ~10.6 제1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전체 24명 참가 (13명 수료)
특별초청강사: 전재규(대구동산병원 의사/한국호스피스협회 설립자/본회 고문)
김경환(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5년경력)

2016.9.28 제3차 추수감사주간 음악회(Baptist Care, DHL Centre) (ACC/SICA 공동주최)

2016.9.26 호주정부 무료 First Aid 자격 교육(18명 자격 취득)

2016.8.20 제4차 정기총회 (장소: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호주 호스피스 협회) 설립(ABN: 17 110 189 115): 시드니 호스피스(SICA)는 제8차 Committee에서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를 설립하기로 의결하였고, 호주 전역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넓히고자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설립을 총회에서 추인 함.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 김장대 Treasurer (재정): 송정희, Secretary(총무): 성순자, Audit(감사): 조철호

2016.5.9 제2차 어버이 주간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2016.1.1 SICA Home Page 개설(www.sydneyhospice.com.au)

2015.12.28 제1차 성탄 송년 음악회 (Baptist Care Shalom Centre)

2015.10.24 제3차 정기총회 (장소: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30분)
결의사항: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 에 대한 정확한 한글 명칭이 없이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조직운영에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제3차 정기총회 이후 한글명칭 "이사회"는 해산되고,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라는 영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Committee Member 를 받기로 함. 별칭으로 AICA (Australia Institute of Cancer Aid)를 사용하기로 함.

2015.9.30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2015.9.25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2015.8.10 사무실 이전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015.8.8 제2차 임시총회(장소:모지식당, 의제:김장대목사 대표신임) (대표(Chairperson, Public Officer): 김장대목사 신임, 96% 찬성)

2015.4.2 제2대 대표로 김장대 목사 선임(Chairperson/Public Officer) (변종무 대표 사임)

2012.10.15 제1차 총회 (의장:변종무 서기: 김영일 선출)

2011.3.17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명칭변경(ABN 87 157 916 417)

2007.8.4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시작 (1회)

2006.10.3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실시(1회)

2004.7.1 소식지 출간

2004.1.4 한국 샘물호스피스회 시드니회로 출범(대표 변종무 목사)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정기상담] •일시: 월,화, 수요일 10:00~16:00
•장소: 본회 사무실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콘서트 및 드라마 재능 봉사자 모집

너싱홈 환우들과 기쁨을 함께하는 음악 재능 봉사자와 드라마를 통하여 환우들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나누고자 드라마 재능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0430 370 191/0416 758 272

◉ACC/SICA 호스피스와 해외협력기관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대구 동산의료원 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제중원(濟衆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준비물: 도시락, 물
•연락: 0405 317 843(송정희 리더)/ 0430 370 191

◉제 9 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장소: Baptist Care, The Gracewood Centre, 2 Free Settlers Drive Kellyville NSW
•일시: 2017년 4월 10일오후 2시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홈페이지 영어 번역 봉사자 모집

다문화 호스피스 사역을 위하여 모든 ACC 홈페이지 콘텐츠가 영어로 작성됨으로 영어번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0430 370 191/ 0416 758 272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 (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입금 계좌명 및 계좌번호
후원계좌명 (Account Name):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ANZ	012-401	1859-55523
Westpac	032-069	389575
NAB	082-451	19-458-1666

* 정성어린 후원금은 호스피스(SICA)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소식지2 월 2017회계 자료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Han Nah No	50	MEMBERSHIP FEE	통신비	69.35	
Kyung Hee Lim	20	MEMBERSHIP FEE	인쇄 홍보 비	275	
In Hee Lee	10	MEMBERSHIP FEE	차량유지비	147	
Mary Chang	20	MEMBERSHIP FEE	관리비	110	
Young Do Byun	50	MEMBERSHIP FEE	식대 및 부식비	192	
Il Hwee Kim	20	MEMBERSHIP FEE	경조비	0	
Jongse Kim (Paul)	10	MEMBERSHIP FEE	행사 및 세미나	238.95	
Ok Kyung Kim	1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345.4	
Young Hee Kim	40	MEMBERSHIP FEE	회계사.변호사	0	
Jung sook Choi	70	MEMBERSHIP FEE	보험료	0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water	0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First aid	0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가지급금 Acc	1415	speaker system구입위해
Elhis Kim	10	MEMBERSHIP FEE	Total	2792.7	
Jin Geun Yoon	50	MEMBERSHIP FEE			
Bok Hee Choi	50	MEMBERSHIP FEE			
Bok Hee Choi ,Jin Geun Yoon	100	Donation			
Do san Hanna	210	Donation			
sung sil In	100	Donation			
Moon Sung Lim, Jung ok Jang	50	Donation			
Harp group	50	Donation			
Gna Solutions	100	은 Donation			
수 입 Total	1250				

제 2 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공고

호주호스피스협회/시드니 호스피스(ACC/SICA)에서 제2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한국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암환우를 사랑하며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실제 봉사하실 분
- 모집기간: 2017년 2월20일~4월10일
- 모집인원: 15명(선착순)
- 등록비: 무료 (숙박과 식사 제공 및 의료 선교지 방문)
- 항공비: 본인부담
- 교육기간: 2017년 4월25일(화)~4월28일(금)
- 교육장소: 대구동산의료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특별혜택: 본 교육과정은 한국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수료증과 호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수료증을 받습니다. 본 과정 자원봉사자교육을 수료한 분 중에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1개월간 인턴과정을 마치고 Verification of Voluntary Work를 Centrelink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회 Home Page에 공지되었습니다. (Http://www.sydneyhospice.com.au)

연락처: 0430 370 191/0416 758 272 (대표 김장대)

주 요 활 동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갈등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며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유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를 실시함으로 연약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되는데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걷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ACC/SICA 홍보활동
   - •ACC/SICA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민들의 기부금과 교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 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형편에 따라 검소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4월의 여유있는 삶

주님의 발을 씻도록
예수님, 제가 당신의 발을 씻도록 허락해 주소서. 더러운 제 마음 안을 다니시느라
주님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에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 내도록 저를 허락하소서.
저의 못된 행실 때문에 주님의 발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 씻는 데 필요한 물을 어디서 구하나요?
물이 없다면 저의 눈물이라도 써야지요.
주님,
저의 눈물로써 당신 발을 씻도록 허락하소서.
그럴 때 저 자신도 씻겨질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 (Ambrosius, 340~397)

ACC/SICA
Australian Cancer Care Inc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HOSPICE

◎ 발행처: ACC/SICA 호스피스 협회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ACNC):
  ACC(ABN: 17 110 189 115) / SICA(ABN: 87 157 916 417)
- 주소(Add.):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ob : 0430 370 191, 0416 758 272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or sydneyhospice@gmail.com
- Web: www.australianhospice.com.au(Eng) /
  www.sydneyhospice.com.au(Kor)
- 발행날짜(Date of Issue) : 2017년 3월 23일
- 발행(Publication)/편집(Edtion): 김장대(Rev. David Kim)